

**텍트론,
DTV 수출 호조**

텍트론(대표 오충기 <http://www.dectron.co.kr>)이 MP3플레이어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하고 있다.

작년 LCD TV시장에 본격 뛰어든 텍트론은 올해 이 분야에서만 250억 원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인 204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26, 32인치 LCD TV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월 3,000~4,000대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호조세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이 주효했다는 풀이다. 26인치 LCD TV의 경우 받침이 돌고래 꼬리 무늬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된 데다, LG필립스LCD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타사보다 뛰어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것. 여기에 LCD TV에서는 20, 23, 26, 30, 32, 37인치를, PDP TV는 42, 50인치 등 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통한다.

텍트론은 내년에도 올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으로 특히 홍콩·싱가포르 등지의 아시아권으로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라인업 역시 42, 26인치 LCD TV와 60인치 PDP TV를 출시하며 발빠르게 시장에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거실형 엔터테인먼트PC 출시**



삼성전자가 거실에서 TV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족용 홈 엔터테인먼트 센터 『매직스테이션 MT40』을 출시하고 12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이로써 기존 방에서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PC)의 개념이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격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매직스테이션 MT40』은 일반 가전제품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통해 거실에 설치 및 이용하기 알맞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TV와의 편리한 연결을 위해서 RGB·DVI·S-Video는 물론 DVD플레이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YPbPr)단자까지도 지원하여 보다 깨끗한 영상을 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캠코더 등에 사용되는 모든 휴대메모리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카드 슬롯 및 IEEE1394, USB2.0 등 각종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최근의 디지털 가전제품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TV를 실시간으로 재생·제어 할 수 있는 PVR(Personal Video Recorder)기능과 2주 분량의 방송 정보로 간편한 예약축화가 가능한 EPG(Electric Program Guide, 전자 프로그램가이드)는 TV 시청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준다.

또한, 기존 5.1채널에서 서라운드를 보강한 7.1채널의 고음질 오디오를 지원하여 더욱 웅장하고 실감나는 음향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PC에 홈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용하였다. 홈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도어센스와 무선 적외선 센스에 동작물체가 감지되면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보내 줘 밖에서도 쉽게 집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은 차세대 미디어 센터인 “Windows XP Media

Center Edition 2005”를 탑재하여 누구라도 쉽게 TV, 사진,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리모컨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 원거리에서도 작동 가능한 무선 키보드와 충전기능까지 제공한 무선 마우스를 기본으로 제공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은 컴퓨터와 각종 디지털 AV기기가 동시에 필요한 사용자와, 거실 혹은 원룸에 제품을 설치하여 미디어는 대형 TV로 감상하고 작업은 모니터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 홈씨어터 시스템을 갖추고 HTPC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기타 장비와의 설치위치나 디자인 때문에 고민했던 사용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컴퓨터시스템사업부장인 김현수부사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매직스테이션 MT40은 새로운 형태의 거실형 PC로 기존 PC의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킨 홈서버에 가까운 컨셉을 갖고 있어 가정내 PC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면서 “삼성전자는 PC를 가정용 A/V 디지털 미디어를 제어하는 중심제품으로 자리매김 시키면서 PC시장을 더욱 확대시켜나가고 국내 PC의 방향을 선도하는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매직스테이션 MT40의 출시를 통해 거실용 컴퓨터 시장에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홈 서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년간 1위를 지키고 있는 국내 컴퓨터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인텔 펜티엄4 530(3.0GHz) / 512MB DDR2 메모리 / 120GB 시리얼ATA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16배속 PCI-Express 128MB 그래픽을 장착한 고급형 MT40의 소비자 가격은 210만원이며, 인텔 셀러론 335(2.8GHz)를 장착한 보급형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125만원이다.

**삼성전자,
다기능 포켓 캠코더 “미니켓” 출시**



삼성전자가 누구나 꼭 갖고싶은 6가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초소형 메모리 캠코더 『미니켓(Miniket)』을 출시하고 12월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미니켓』은 디지털 캠코더·디지털 카메라·MP3 플레이어·보이스 레코더·PC 카메라·휴대용 메모리 등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총 6가지의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모두 내장하고도 신용카드만한 초소형으로 주머니 속에 항상 휴대가 가능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진정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기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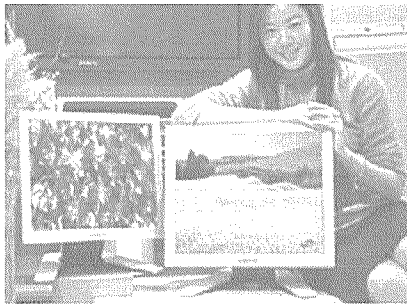
이번에 출시되는 『미니켓 VM-M110』은 1GB(기가바이트) 플래시 메모리를 기본으로 내장하여 동영상 최대 68분·MP3음악 250곡 이상·음성녹음 최장 18시간 등 고용량 콘텐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메모리 스틱 프로 슬롯을 통해 무한한 메모리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동영상이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PC에 저장하여 편집·감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미니켓』은 MPEG4 규격(720*480, 30프레임)의 고화질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캠코더 전용의 손떨림 보정기술과 전동 10배줌, 디지털 100배줌 등 고배율 줌기능이 제공되어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세계최대 명암비 모니터 출시**



이제 모니터로 풍부한 색상, 깊이감 있는 영상을 내 마음 대로 즐긴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대 명암비(1000 : 1)를 구현하고, 독자적인 컬러엔진 기술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색감으로 더욱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는 LCD 모니터 2종 (17인치형 : 싱크마스터 CX714T/19인치형 : 싱크마스터 CX911T)을 선보인다.

이번 삼성전자가 출시한 신제품은 1000 : 1의 업계 최대 명암비를 구현하여 훨씬 선명하고 깊이감 있는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

명암비란 화면이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의 밝기간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비율이 클수록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17인치 LCD모니터의 경우 명암비가 400 : 1~500 : 1 수준에 이른다.

또한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니터 전용 색상구현 전문칩(MagicColor Engine)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색감(따뜻한 색감 2단계, 차가운 색감 7단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색감을 선택적으로 높일 수 있어 흐릿한 원본 이미지에

서도 사진처럼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선보인 신제품은 178/178의 넓은 시야각 구현으로 작업환경을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벗을 비롯한 높이, 기울기, 좌우로 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형 스탠드(MagicStand™)를 탑재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다.

두 제품 모두 대기전력을 2W미만(110V의 경우 1W 미만)으로 낮춰 고유가 시대에 안성맞춤이며 세계적인 유력 환경인증인 TCO 03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김수봉 상무는 “이번 제품은 삼성전자 모니터 기술이 집적된 제품으로 섬세한 색감표현이 요구되는 디자인러뿐 아니라 게임·음악·DVD 등의 멀티미디어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SDI,
세계PDP 1위**

세계적인 뉴스 전문 방송사인 미국 APTN(Associated Press Television News)이 삼성SDI(대표 김순택)를 PDP 세계 1위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분석한 프로그램을 보도해 화제다.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정치·외교·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APTN이 세트도 아닌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에 대해, 또 일반 기업체의 한 사업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방송은 ‘초거대 TV(Giants TV)’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2분 50초 동안 평판 디스플레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삼성SDI를 PDP 산업을 주도하는 시장 1위 기업”이라며 “향후에도 가장 공격적인 투자로 PDP 업계 1위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SDI의 80인치 PDP 모듈이 세계에서 가장 큰 TV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도쿄TV도 지난 달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FPD 인터내셔널 2004'를 취재하면서 삼성SDI를 2분 30초 가량 소개했다.

이 방송은 주로 삼성SDI의 빅슬림 브라운관을 소개하면서 “브라운관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삼성SDI가 부품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의 언론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주로 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해왔던 홍보 활동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세대 교체기를 맞아 종합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한미디어, 전자소재사업 대폭 강화

새한미디어가 디스플레이 및 노트북용 필름 등 IT관련 전자소재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한미디어(대표 이석희 <http://www.saeahanmedia.com>)는 기존의 AV 기록미디어 부문 매출 감소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 노트북·휴대폰·LCD·PDP 등에 사용되는 전자소재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우선 LCD 및 PDP 등에 사용되는 이방전도성필름(ACF)과 노트북용 절연필름(Insulation Film), 복사기·프린터용 토너 등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충주 공장에 파일럿 설비를 도입,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전자소재사업 부분에서 만 2007년에 850억원, 2008년에 1,500억원, 2010년에 2,700억원의 추가매출을 달성, 현재 2,600억원의 연매출을 2010년까지 4,200억원으로 늘인다는 목표다.

한편 새한미디어는 지난 10월 기업매각이 1차 유찰된 바 있으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현재 매각 재입찰과 워크아웃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소니코리아, '무비 사이버샷' 디카 출시



소니코리아(대표 이명우 <http://www.sony.co.kr>)는 세로 그림 디자인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카메라 '무비 사이버샷 DSC-M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270° 회전되는 2.5인치 LCD창과 전면부에 있는 버튼 몇 개로 정지영상과 동영상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 좌우로 개폐되는 세로 그림 디자인으로 이제까지 디카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던 '가로 직사각형'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510만 화소, 광학 3배줌에 칼자이스 바리오 테사 렌즈와 영상처리 엔진인 '리얼 이미징 프로세서'를 탑재해 깨끗한 영상과 빠른 반응 속도, 장시간 배터리 사용량을 자랑한다. 동영상 압축방식으로 MPEG4를 채택, 초당 약 30프레임 고화질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스테레오 녹음도 가능해 다양한 현장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군호 소니코리아 이사는 “이 제품은 소니가 그간 강조해 온 특징을 총망라한 미래형 사이버샷”이라며 “세로 그림 디자인을 채택해 한 손으로 잡고 촬영하기 편할 뿐 아니라, 장시간 동영상 촬영을 해도 손목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레전자, 스카이라이프와 HDTV방송 공동마케팅

디지털TV 전문회사인 이레전자산업(대표 정문식 <http://www.erae.co.kr>)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대표 황규환)과 제휴를 맺고 공동으로 디지털TV 마케팅을 펼친다.

이레전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고화질 디지털방송 HDTV 방송 공동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사가 각각 보유한 디지털TV 제품 및 고선명 TV 방송콘텐츠를 연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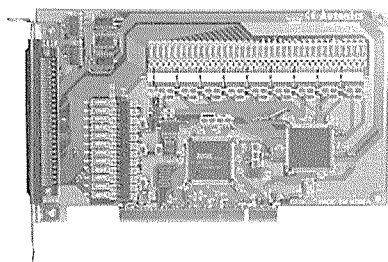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레전자와 스카이라이프는 자사의 총판, 대리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TV 제품 및 HDTV 방송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판촉활동을 공동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유럽 및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TV 수출에 주력해왔던 이레전자는 최근 국내 디지털TV 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PC기능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PDP TV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연내 출시를 목표로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토닉스, 최고성능의 PC기반 4축 모션 콘트롤러



*PMC-4B-PCI는 Pulse 입력을 받는 서보모터나 Step 모터의 위치 결정 제어(Position control), 보간 드라이브(Interpolation drive), 및 속도제어(Speed control)가 가능한 PC/AT 호환기 PCI bus 대응의 제품으로써 1Board로 4축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특징

- 4축 독립 AC Servo Motor 및 Step Motor 제어 가능
- 고속 운전 최대속도 4Mpps까지 제어 가능
- 자동 원점 복귀 실행 및 동기동작 기동
- 원호/직선/Bit Pattern/연속/가감속 Drive에서 보간 가능
- 2축/3축 선속 일정
- PC-PCI Type Card
- Window 98, NT, 2000, XP 호환 가능
- C++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라이브러리 제공

사양

- 모델명 : PMC-4B-PCI
- 제어축수 : 4축
- 제어 Interface : PCI bus

● 보간 기능

- ▶ 2축/3축 직선 보간
 - ▷ 보간범위 : -2,147, 483, 646 ~ +2,147, 483, 646
 - ▷ 보간속도 : 1pps~4Mpps
 - ▷ 보간위치 정밀도 : ±0.5 LSB 이하
- ▶ 원호보간
 - ▷ 보간범위 : -2,147, 483, 646 ~ +2,147, 483, 646
 - ▷ 보간속도 : 1pps~4Mpps
 - ▷ 보간위치 정밀도 : ±1 LSB 이하
- ▶ 2축/3축 bit pattern 보간
 - ▷ 보간속도 : 1pps~4Mpps (CPU data setup 시간에 의존)
- ▶ 그 밖의 보간기능
 - ▷ 임의의 축 선택 가능, 선속 일정, 연속 보간, 보간 Step 전송 (Commend, 외부신호)

● 범용 출력 : IN0~3 각 축 4점

● 그밖의 기능

- ▶ 전원전압 : 5VDC
- ▶ 외부전원 전압 : 12-24VDC
- ▶ 가감속 드라이브(정속 드라이브, 직선 가감속 드라이브, S자 가감속 드라이브)
- ▶ Encoder 입력 Pulse
- ▶ 위치 Counter
- ▶ 비교 Register
- ▶ Interrupt 기능(보간제외)
- ▶ 외부 신호에 의한 드라이브 조작

필립스전자, 절전형 방전램프 출시

필립스전자(대표 신박제)는 기존 할로겐램프에 비해 3~5배까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미니 세라믹 방전램프(CDM) 20W'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소비전력이 20W로 이제까지 매장 조명용으로 많이 사용된 50~100W 할로겐램프보다 더 밝으면서도 3~5배까지 전기를 절약해 주는

것이 특징이며, 수명도 최대 9,000시간으로 기존 제품보다 3~8배 길며, 램프 발열에 따른 제품 손상 뿐 아니라 에어컨이나 공조시설 가동 등 각종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필립스전자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서 오는 4일 힐튼호텔에서 건축설계 담당자, 인테리어 및 조명 디자이너, 백화점 등 관련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매장 조명시스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JVC코리아, '에브리오' 출시

JVC코리아(대표 이태구치 요시오 <http://www.JVC.co.kr>)가 초소형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디지털미디어카메라 '에브리오'를 한국과 미국에 동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에브리오'는 디지털캠코더에 디지털카메라와 보이스레코더를 결합한 신개념의 디지털미디어카메라(4x10x7cm)로 4GB 하드디스크가 내장돼 있어 고화질 동영상을 60분까지 저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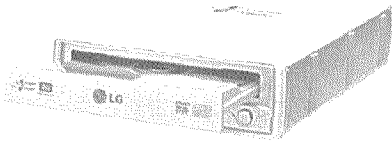
다양한 녹화모드를 선택할 경우 최장 5시간까지 촬영 가능하며, UXGA(1600X1200) 고해상도 정지 사진은 1만장, 48kHz/16비트 PCM 스테레오 방식으로 음성을 저장하고 쉽게 전송할 수 있다. 또 영상이 파일폴더로 저장되기 때문에 PC에서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고, DVD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CCD는 총 2.12메가 픽셀을 제공하며 새로 설계된 수퍼 고해상도 렌즈는 9군 11매로 구성, 초정밀 유리 렌즈로 제작돼 있다.

큐브 스타일(GZ-MC200)과 버티컬 스타일(GZ-MC100) 두 종류가 있으며, 특히 큐브 스타일의 경우 손잡이 각도를 ±45°로 조정할 수 있는 로테이팅 그림을 장착해 손목의 피로감을

줄여주며 어떤 각도에서건 쉽게 촬영할 수 있다. 가격은 각각 159만 8,000원, 149만 8,000원이다.

**LG전자,
16배속 외장형 슈퍼멀티 DVD Writer 출시**



LG전자가 16배속으로 DVD+R 기록이 가능한 외장형의 16배속 슈퍼멀티 DVD Writer(모델명 : GSA-5160D)를 출시한다.

외장형 슈퍼멀티 DVD Writer는 PC 내장형 기존 제품과 달리 간편한 인터페이스(USB 2.0과 IEEE1394 지원)가 가능하여 사무실, 학교, 관공서 등 어디에서나 PC나 노트북의 케이스를 분리하지 않고 간단하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더블레이어(Double Layer, 하단설명 참조) 기록이 가능하여 CD 12장 분량의 8.5GB 대용량을 1장의 DVD미디어에 저장할 수 있다.

번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CD, DVD의 각종 미디어에 데이터, 음악, 정지영상, 동영상 등을 저장, 편집해 간편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LG전자의 슈퍼멀티 DVD Writer는 모든 종류의 DVD의 기록/재생 및 CD 기록/재생이 가능하다.

AV기기와 호환성이 뛰어난 DVD+R/-R, 대용량의 데이터나 동영상 재기록에 적합한 DVD-RAM/+RW/-RW, HDD처럼 데이터를 쉽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고 십만회까지 재기록이 가능한 DVD-RAM, 데이터와 오디오 기록에 적합한 CD-R/RW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DVD-RAM은 최고 배속인 5배속으로 결점보완 기술(Defect Management)를 채택하여 미디어의 흠점, 지문 등의 작은 결점도 보정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며, 10만 회까지 반복기록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는 1998년 이후 광스토리지 분야에서 표준규격을 선도하며 전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도 '세계 판매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LG전자,
19인치 TV겸용 LCD 모니터 출시**



LG전자가 TV수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갖춘 19인치 FLATRON LCD 모니터를 출시했다.

LG전자가 출시한 FLATRON LCD 모니터(모델명 L193ST)는 PC 작업은 물론 TV수신튜너가 내장되어 TV시청이 가능한 다기능 모니터다.

스피커 일체형의 이 제품은 하나의 화면을 분할하여 TV시청과 인터넷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POP), 디지털 셋톱박스과 연결하여 1280*1024의 해상도의 HD급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국내 LCD 모니터 중 가장 빠른 12ms의 응답속도를 갖춰, 느린 응답속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잔상현상이 없어 영화, 뮤직비디오, 스포츠 등의 동영상을 위한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며 PC의 Analog 신호뿐만 아니라 Digital 신호(Digital Video

Interface : DVI) 수신도 가능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구현한다.

또한 블랙과 실버 색상의 세련된 조화, 크롬도금의 라운드형 스탠드 등의 고급스런 디자인은 작업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향상시켜 준다.

이제 모니터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이나 업무를 위한 Display가 아니라 Information, Entertainment, Office, Education 등 종합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필수 장비가 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Application이 가능한 Multi-function 모니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LG전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15~42인치의 Line-up을 통해 국내 LCD 모니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라인업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CRT 모니터 시장에서 98년 세계최초로 완전평면 모니터 '플래트론' 신화를 이뤄낸 저력을 바탕으로 LCD모니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5%로 세계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의 모니터 사업은 FLATRON LCD 모니터를 중심으로 모니터 분야의 Global Leader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적극적인 Global 마케팅을 바탕으로 Power Brand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R&D투자로 대형 및 Multi Fuction 모니터의 Line-up 다양화를 통해 Digital Display 트렌드를 움직이고 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Product Leadership을 견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Market Leader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LG전자,
19인치 TV겸용 LCD 모니터 출시**



LG전자가 70인치대로는 세계최초로 초대화면 71인치 PDPTV를 본격 출시한다. 홈씨어터·셋톱박스와 Package로 판매되는 이 제품의 가격은 세계최고가인 8,000만원이다.

지난 9월 세계최대의 55인치 LCDTV 판매를 시작한 LG전자가 세계최대의 71인치 PDPTV 본격 출시로 FPD 양대 축인 PDPTV와 LCDTV에서 명실공히 세계최대 크기의 디지털TV를 판매하게 된다.

LG전자(대표 金雙秀 / www.lge.com)는 세계최대 71인치 PDPTV 국내 출시 및 세계시장 본격 공략에 앞서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CTO 백우현(白禹鉉) 社長, DDM사업본부장 우남균(禹南均) 社長, 전자기술원장 이희국(李熙國) 社長 등 약 20명의 관계 임원이 참석했다.

LG전자가 세계최초로 출시하는 71인치 PDPTV는 지난해 7월 개발 당시 대형 PDP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1080p(주사선)의 Full HD급 영상 구현 및 16:9 화면비 구현 등의 쾌거로 FPD(Flat Panel Display)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LG전자는 71인치 PDPTV를 金裝(24K) 하는 등 Package로 판매되는 홈씨어터 및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기에 'Luxury Gold Design'을 채용해 최고급 플래티넘 이미지를 강조했다.

국내시장에서 71인치 PDP TV는 홈씨어터, 디지털방송 수신기와 함께 世界最高價인 8,000만원에 Package로 판매되며, 특히 잠재고객의 방문이 많고 최고급 플래티넘 이미지를 제고시킬 있는 채널(백화점, 대리점 등)을 선별하여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金裝 PDPTV(42~60인치) 판매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왕궁마케팅을 통해 성과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타겟마케팅 및 주문형 양산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향후 북미·중동·CIS 지역에 71인치 PDPTV를 런칭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우남균 사장은 2006년 세계 PDPTV 시장 1위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우선 FPD 양대 축인 PDPTV 및 LCDTV에 대해 각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LG브랜드의 FPD를 세계 1위의 FPD브랜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2005년 PDP 모듈 세계시장 점유율 30%를 기반으로 2006년 PDPTV 세계시장 1위 및 2008년 LCDTV 세계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PDPTV 수요기반이 점차 확대되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화면크기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PDPTV의 대중화를 위한 개발역량 확대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 날 행사에서 우남균 사장은 "세계최대의 71인치 PDPTV 출시를 계기로 브랜드 마케팅과 세계최고의 기술경쟁력을 FPD(Flat Panel Display)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며 "또 PDPTV·LCDTV에 사업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홈AV사업, 카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사업, 모바일AV사업 등 여러 사업간의

전략적 연계 및 시너지(Synergy)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및 미디어 분야에서 2007년 Global Top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디지털TV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칩셋 ▲디스플레이 부품(수직계열화) ▲소프트웨어(Software) 등 3개 영역의 핵심경쟁력과 디지털TV 전송기술(VSB/EVSB)에 관한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디지털TV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하단 '▶ LG전자의 디지털TV 경쟁력' 참조)

LG전자는 영국, 독일, 스페인, 사우디, 호주, 남아공 등 17개 국가에서 PDPTV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M/S 1위 국가를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LG전자는 북미(멕시코)·유럽(폴란드)·중국(심양·남경) 등 3대 해외거점에 디지털TV 생산체제를 구축했으며, 지역별 시장동향·고객별 Needs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현지완결형 마케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350만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PDPTV 세계시장은 북미·유럽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및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수요기반 확대 등으로 05년 630만대, 06년 1,000만대, 07년 1,200만대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PDPTV

71인치 PDPTV는 대형 Full HD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속 구동기술 및 신소재 개발·적용으로 PDPTV 한계로 여겼던 HD방송 최고 규격인 Full HD(1920*1080p)의 해상도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1080p의 Full HD 화면은 1080 Line으로 송출되는 방송 신호를 손실 없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 71인치 대형 화면에서도 떨림이 없는 선명한 H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70인치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16:9 화면비를 구현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 제품은 16:9로 방송되는 영상 신호를 해상도의 저하 없이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유리원판 크기 및 생산설비 등 공정기술상의 문제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XD엔진 적용으로 디지털 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신호 세기 편차로 발생했던 화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더욱 밝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

▶ 흠씨어터

최고급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톨보이 스피커와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여 최고의 음질과 520W의 힘이 넘치는 디지털 출력이 특징이다.

앰프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로 처리함으로써 신호 왜곡 없이 디지털 원음의 실감나는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다.

알루미늄 톨보이 스피커 안의 인클로저를 최대 크기로 설계하여 저음부의 울림이 좋으며, 소리를 반사해주는 진동판이 알루미늄으로 설계되어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재생한다. 또한 톨보이 스피커의 높이가 1,500mm로 71인치 PDP TV와 설치시 최상의 조화로우를 연출한다.

또한 광(Optical) 디지털 음성 입력 단자를 통해 HD디지털 방송을 5.1채널로 감상할 수 있고, 최신 게임기(PS2, Xbox 등)와 연결하여 5.1채널로 실감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DVD, 비디오 CD, CD-R/RW, CD는 물론이고 DVD±R/RW, 슈퍼비디오 WMA/MP3CD, JPEG Viewer 까지 다양한 규격의 재생이 가능하다.

전면부에 A/V 입력단자를 배치하여 캠코더/게임기등 잠시 사용하는 외부기기와의 연결시 편리성을 배가했다.

▶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기

PDP와 셋톱박스의 통합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PDP와 디지털 셋톱박스 중 한 제품만 조작하면 채널/전원 등의 신호가 다른 제품까지 전달된다.

HD급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동시에 수신할 뿐 아니라, 통합방송안내기능(디지털/아날로그)을 지원하여 TV의 외부입력 모드 전환 없이도 디지털/아날로그 방송을 즐길 수 있다.

또한 VTR/DVD/PC 등을 위한 다양한 입력단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PC 입력의 경우 XGA급 지원 및 16:9 화면 자동조정 기능을 지원한다.

▶ LG전자의 디지털TV 경쟁력

LG전자가 보유한 세계적인 디지털TV 기술은 ▲핵심칩셋 ▲디스플레이 부품(수직계열화) ▲소프트웨어(Software) 등 3개의 핵심기술로 나눌 수 있다.

핵심칩셋 분야에서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디지털 방송의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왔고 그 성과로서 북미방식 디지털방송 전송규격인 VSB기술의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수년내 연간 1억 불 이상의 로열티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 ASIC의 자체 Solution(Demodulator, Decoder 등)을 조기에

확보 완료하였고 이러한 ASIC의 복합화 및 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핵심 ASIC에 대한 마케팅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재료비가 DTV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점을 고려할 때 LG전자의 DTV 경쟁력의 핵심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전송기술에 대한 원천특허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Module(PDP/LCD Panel, 브라운관 등)의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다.

LG전자는 PDP Module, LCD Module (LG-Philips LCD), 브라운관 (LG-Philips Display)의 내부 조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각각의 Module이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프로젝션 TV 분야에서는 기존의 CRT type의 Floor-top 형태 1세대 TV에서 벗어나 두께가 반 이상 줄어들고 Table-top형태로 만들 수 있는 DLP, LCD 기반의 광학엔진을 활용한 2세대 기술을 확보, 프로젝트 TV 분야의 강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했다.

Software 분야에서도 지역별 Data 방송 규격(MHEG, MHP, DASE, ATVEF), OpenCable, HD PVR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히 최고수준의 독자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